

매경춘추

장순흥 한동대학교 총장



2월 첫날 구글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구글 지주회사인 알파벳 시가총액이 5700억달러로 애플을 제친 것이다. 1998년 25세에 구글을 창립한 세르게이 브린과 래리 페이지는 18년 만에 세계 시총 1위에 올랐다. 한 금융사에 따르면 1926년 이후 시총 1위에 오른 기업은 구글, 애플, MS, IBM, 시스코, 제너럴일렉트릭(GE), 제너럴모터스, 엑손모빌, 월마트, AT&T, 알트리아, 듀폰 등 12개에 불과하다. 구글의 약진은 전 세계 소프트웨어 산업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한때 전 세계 시총 1위였던 AT&T의 고전과 대표적인 제조업체 GE의 소프트웨어

기업 선회 선언은 이미 우리가 소프트웨어 산업을 살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21세기 소프트웨어 산업을 뜨는 별은 무엇일까?

먼저, 기존 산업에 IT를 접목한 X테크 산업이다. 최근 핀테크, 푸드테크, 바이오테크 등 ICT 융합산업이 급부상하고 있다. 증기기관을 통한 1차 산업혁명, 전기 발명으로 인한 2차 산업혁명,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3차 산업혁명을 거쳐 4차 산업혁명이라 일컫는 ICT 융합시대를 맞은 것이다. 구글이 보여줬듯이 IT 전성시대에 필수 저력은 모바일 연결과 플랫폼 구축이다. 일례로 푸드테크는 기존 식품산업에 빅데이터 등 IT를 결합해 신산업

창출을 이끌어내고 있다.

둘째, 의식주, 바이오, 헬스·뷰티 산업 등 실생활 밀접 산업이다.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을 위한 경쟁 시대를 탈피한 우리는 삶의 질적 향상을 추구한다. 패션계 최고 부자인 자라 창업주 아만시오 오르테가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신속하고 저렴하며 매력적인 것으로 제공한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끝으로, 공유경제 산업이다. 자동차를 공유하는 우버, 집을 공유하는 에어비앤비, 사무실을 공유하는 위워크는 널리 알려져 있다.

실제로 음악, 영화, 신문 등 콘텐츠미디어 산업은 P2P 사이트, 소셜네트

소프트산업의 시대

트위크서비스 등에 철옹성 같던 자리를 넘겨주고 있다. 인터넷 발달은 시공간을 초월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줬고, 더 나아가 사물인터넷의 발달로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 연결이 더욱 활발해지는 초연결 시대도 도래했다. 초연결 시대에서 공유경제는 더욱 활성화할 것이고 끝없는 혁신과 창의를 요구할 것이다.

거부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직면한 우리는 인식과 제도 개선으로 창조성을 극대화하며, 과감하고 신속한 도전을 즐겨야 한다. 눈부신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한국이 이제 신성장 동력 사업을 육성해 소프트웨어 산업을 주도해야 할 때다.